

# 공천 잡음·계파 갈등... 총선 코앞 '위기의 민주당'

### 임혁백 공천위원장 '밀실 공천' 인정... 사천 논란 커질 듯 현역 하위 20% 통보에 추가 탈당 가능성... 공천 작업도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큰 위기에 봉착했다.

당내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후보 내정 사천(私選) 등 '밀실 공천' 논란과 함께 계파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총선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대표의 '밀실 공천' 논란을 인정한 데다,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한 발표에 반발한 탈당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총선을 50일 앞둔 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19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의 '밀실 공천 논란'을 인정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현역 의원들과의 통화에서 밀실 공천 논란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이 밀실 공천 논란을 인정한 데 대해 이 대표가 당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사천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이 대표가 참모들과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를 논의하고 페이스북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쓰는 등 현역 물갈이가 현실화하면서 '시스템 공천'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각 지역의 선거구 경선도 '친명계' 후보의 승리가 유리하게 구도를 만드는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 안팎에서는 '친명' (친이재명계)만 살아남고 '비명' (비이재명계)은 모두 컷

프된다며 '비명행사'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주지역에서는 8개 지역구 중 경선 지역으로 동남갑, 동남을, 북구갑, 북구를, 광산을 등 5곳이 발표됐지만 이곳에서마저 '친명'을 위한 공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남갑의 경우 신인 가산을 받는 오경훈 예비후보가 컷오프됐고, 동남을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인 1위를 달리던 김성환 예비후보가 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광산에서는 여론조사에서 2·3위를 번갈아 기록하던 김성진·최치현 예비후보가 컷오프되고 4위였던 정재혁 예비후보가 현역 의원과 함께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면서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다"면서 "지난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천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그동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이었다면 속도를 냈을 텐데, '비명계 찍어내기', '사천' 등을 위해 공천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여야가 공관위를 출범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빠른 속도로 공천 작업을 진행하는 듯 보였다. 공관위 첫 회의도 국민의힘보다 빨리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천은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순 공천 99곳, 경선 61곳, 전략 공천 3곳 등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63곳의 공천을 정리했다. 반면 민주당은 단순 공천 47곳, 경선 37

곳, 전략 공천 4곳 등 88곳에 대한 결과만 발표하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친명계를 위한 유리한 경선 구도를 만드는 등 '비명계 찍어내기'를 위한 작업에 시간과 공을 들이면서 공천을 지연 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의 '밀실 공천' 논란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핵심 지역인 광주·전남에서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도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서구를 외에 서구갑, 광산갑의 경우 경선 후보 미확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는 사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는 지역적 지지가 기반이 된 후에 위(수도권)까지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만이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표심을 '단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23·24·25차 인제환영식에서 이용우, 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교수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직장갑질119' 이용우 변호사 영입

### '김은경 혁신위' 출신 김남희·차지호 등 인재 3명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0 총선에 투입할 23호 인재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49)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변호사를 포함한 총선 인재 3명을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북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대를 졸업한 뒤 교사의 길을 걷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자동차 생산공장 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해 5년 이상 생활했고, 이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 2017년 직장 내 불공정 관행 등을 공론화하는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로 함께했으며 현재도 법률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위한 시민단체 모임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도 역임했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혁신

위원을 지낸 김남희(45) 변호사와 차지호(43)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총선에 투입할 24·25호 인재로 선정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에서 일했다. 2011년 참여연대로 옮겨 복지조세 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강사로 일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김은경 혁신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 유자원 대응 입법 활동 등에 기여했다"며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현역 vs 비현역' 광주 3곳 첫 경선

### 민주 동남갑·북갑·북을 내일 결과 발표...이합집산 따른 결과 관심 컷오프 논란 '광산' 재심 인용...민형배·정재혁·김성진 3인 경선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19일 광주지역 선거구 3곳부터 시작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3곳 모두가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비현역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만큼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수성을 할 것인지, 비현역들이 '바람'을 일으켜 공천권을 따낼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광주 동남갑, 북구갑, 북구를 선거구 3곳에서 후보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중이다.

경선이 진행중인 광주의 3곳 선거구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한 곳이다.

광주 동남갑은 윤영덕 국회의원과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가, 북구갑은 조오섭 국회의원과 정준호 변호사가, 북구을은 이형석 국회의원과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맞붙는다.

3곳 모두 2인 경선지역으로, 현역 의원과 비현역 1대1 구도가 형성됐다. 이 가운데 북구갑과 북구을 선거구는 앞선 제21대 총선에 이은 '리턴 매치'라는 점에서 후보들 모두가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선 방법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ARS 투표로 진행된다.

19일과 20일은 안심번호를 부여받은 일반 시민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21일은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이 전화를 걸어 투표할 수 있다. 권리당원은 지난달 말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지난해 7월31일까지 입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시민은 선거구별로 휴대전화 통신사가 안심번호를 제공한 5만여명이 투표 참여 대상이다.

경선 투표 결과는 21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경선에 앞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예비후보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이합집산'에 따른 경선 결과도 주목된다.

동남갑에서는 오경훈 전 예비후보가 정진욱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북구갑에서는 진선거 전 예비후보가 조오섭 의원을, 문상필 전 예비후보가 정준호 변호사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3차 경선지역으로 발표된 동남을과 광산의 경선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3인 경선지역으로 확정된 광산의 경우 결선투표가 도입될 경우 3월2일과 3일 결선이 진행된다.

동남을 선거구에서는 현역인 이병훈 의원과 정치신인인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이 경선에서 맞붙는다.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노희용·양형일 전 예비후보가 이병훈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고, 이정락·김병우 전 예비후보 등은 안도걸 전 차관을 돕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은 컷오프된 예비후보들의 공천 재심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3인 경선이 치러지게 된다.

애초 민형배 국회의원과 정재혁 예비후보 간 1대1 경선지역으로 발표됐지만, 컷오프된 김성진·최치현 후보가 즉각 재심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김성진 후보의 재심이 인용됐다. 이들은 "현역 의원과 함께 경선 후보로 확정된 후보는 언론사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의 최약체 후보"라며 이의 제기와 삭발 투쟁에 나섰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